



[산업]
제주항공
중단거리에 집중
국내 2위 목표
08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626.34 (-44.31)	코스닥	873.78 (-17.73)
금리 (우대금)	3.232 (+0.111)	환율 (원/달러)	1257.7 (+15.00)(7일)



3분기 전기요금 오르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는 20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7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계량기 모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인으로 오름 연료비 따라 조정단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소비자물가 등도 상승해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콘셉트 매장에 TV도 판매 편의점업계 ‘탈 편의점화’

점포수 5만개 시대 ‘생존 전략’

점포수 5만개가 넘는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탈(脫) 편의점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이색 편의점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편의점은 즉석식품과 간식 등이 주 판매 품목이어서 객단가는 낮지만 상품 회전율이 높아 실험적인 상품과 점포를 시도하기 좋은 배경이 된다. 다양한 브랜드를 전시하는 ‘팝업스토어’부터 점포 입지에 따른 고객특화 점포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24, 게임·e커머스 컬래버 전시·체험공간 마련 ‘관심집중’ GS25, 주거특화 플래그십 스토어 업계 최초 ‘픽업존·라이더 대기석’

그러나 속사정에는 이제 6만 개 점포를 바라보는 시장 포화에 지구력이 시급한 상황이 있다.

편의점 업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면서 전과 편의점이 고객에 전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MMORPG 게임 ‘검은사막’,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과 손잡고 프리미엄 블랙 콘셉트 팝업스토어 ‘24BLACK’를 선보였다. 기존 삼청동점으로 운영되던 매장을 검은사막, 머스트잇과 함께 프리미엄 블랙 콘셉트로 새롭게 꾸몄다. 인기 게임에 명품 e커머스 플랫폼까지 합세한 컬래버레이션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매장은 기존 편의점 점포로서의 역

할보다는 전시, 체험 공간으로 꾸려졌다. 이마트24와 검은사막의 컬래버 상품인 ‘딜리셔스 블랙’ 상품과 머스트잇의 명품을 전시하고 포토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마트24는 스마트TV인 ‘아이 e스마트TV’를 상품으로 기획, 판매하기도 했다.

GS25는 지난달 변화하는 생활 양식에 따라 부산 동래구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을 주거특화형 플래그십 스토어로 선보였다.

GS리테일은 단순히 고객 연령대에 따른 상품군 차별화가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서비스 전면 재설계를 시도했다. 대단지 신축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20~40대를 주고객으로 특정한 뒤 특성상 배달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 업계 최초로 점포에 픽업존과 배달 라이더 대기석을 도입했다.

AI 치킨 조리 로봇은 물론 O40 활성화를 위해 우덜, 요기요 퀵커머스를 DI D(상업용 대형 디스플레이)로 홍보하는 등 사실상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했다.

세븐일레븐은 와인특화매장 등을 통해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20년도 80억원 적자를 냈으나 지난해 영업이익 15억원을 냈다. 세븐일레븐은 이 같은 성과의 큰 축을 와인으로 꼽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204.4%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세븐일레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븐일레븐 KT강남점에 와인 전문 콘셉트샵 와인스튜디오를 열었다. 복층 점포의 특징을 살려 2층 다목적 휴게 공간을 새롭게 리뉴얼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유럽행 이재용, ‘뉴삼성’ 본격화 반도체 장비·M&A 직접 챙긴다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리스크 속 해외출장 강행 반도체 부족에 EUV장비 확보 ‘의미있는 M&A’ 추진 기대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29주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해외 출장을 강행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위기감도 더 커진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7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해외 출장은 6개월만, 네덜란드는 2020년 말 이후 1년 반만여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을 위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불법승계’ 관련해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출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장비 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네덜란드 ASML은 초미세 공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곳이다. 2020년에도 이 부회장이 직접 ASML을 방문해 EUV 장비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UV 장비 확보는 최근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좌우할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부족으로 EUV 장비 생산까지 늦춰지고 있는데다가, TSMC에 인텔까지 장비 확보 경쟁에 합세하면서 공급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인텔은 차세대 장비인 하이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A EUV까지 선점하면서 경쟁을 가속화했다. 메모리까지 생산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비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안정화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누가 먼저 도입하는지도 기술 경쟁에 중요한 요소”라며 “EUV 운용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도입이 너무 늦어지면 인텔에 추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의미 있는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7년 하반기 이후 그렇다할 인수 합병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 최근 한중회 부회장은 M&A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네덜란드 NXP는 오랫동안 삼성전자 인수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NXP는 차량용이나 보안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전장 반

도체로 잘 알려진 독일 인피니언도 삼성전자의 M&A 대상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를 거쳐 독일과 프랑스 등 국가도 들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보쉬 등 전장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에 위치해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전장 반도체 기업을 M&A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장 반도체 기업 몸값이 2배 가까이 오른 데다가, 삼성전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영국에 있는 Arm과 접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Arm은 올 초 엔비디아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발발된바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함께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삼성전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尹 대통령, ‘총파업’ 화물연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부 요직에 檢 출신 독식 지적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정부 대처와 관련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전 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가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실 참모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는 따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여야간 국회 원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와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대통령 “민생안정, 최우선 순위… 중앙·지방·대통령실 한마음”
- ▲이재명, ‘개딸’들 축하 화환 행렬 속 첫 등원…“무거운 책임감” /사진 뉴시스

- ▲野, ‘女 사저 시위 법대로’尹에…“시위 방자 욕설·고성방가 용인?”
- ▲美 유학길 이낙연 “제 출국에 시비… 국내 있는 분들이 잘해주길”



- ▲우크라이나 간 이준석, 당내 비판에 “다들 자중하라” /사진 국민의힘
- ▲한미 공군, 서해서 대북 무력시위…F-35 등 20대 동원